

현대패션에 나타난 물의 의미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임 영 자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The Meaning of Water in Contemporary Fashion -Viewed as Human Desire-

Young-Ja, Lim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

ABSTRACT

Water allows us to have artistic experiences of searching for the source of hints and techniques by bring about the emergence of the new representation, new themes and new forms of arts. The water that holds a great deal of hidden meaning shape the imag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mental relationship the concept of water had the mental phenomenon of water in Hea-sang-kun-sun-do in terms of the event of contemporary fashion, in the present -day age.

This means the stream of thought to grope a new paradigm of multi-culturism that claims the coexistence of East and West civilizations in the contemporary civilization.

The meaning of water is developed fabrics connected with the water and the water emerge the issue in contemporary fashion.

And the concept of water as the meaningful concept is used as the tool to represent a certain issue in silhouette and fabrics not only the introduction as substantial water into fashion giving the fashion designer's emotion to shape and representing the fashion designer's aesthetic needs by emphasizing with the designer.

Key Word : 물 (water), 부유 (floating), 해상군선도 (Hea-sang-kun-sun-do), 플로텍스 (Flotex)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I. 서 론

인체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적 구성으로서의 패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미적 해석을 바탕으로 내적요인이 결합된 미적 추구와 당대의 조형예술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새로운 조형적 구성을 이룬다. 이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는 제일 먼저 예술에 나타난다.” 고 주장한 프란카스터(Francaster)의 이론을 밑받침하는 것으로 사회적 움직임 즉, 환경의 변화는 작가들에 의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며 예술의 새로운 구상, 새로운 테마, 새로운 기법, 새로운 형식의 출현이 항상 그 사회에 진원이 되고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¹⁾

서구문화는 특수한 방식의 유희를 예술의 고유한 미학적 사건으로 여겨 작품이 환기하는 자유로운 유희에 몸을 맡기는 그 순간에도 작품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자극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암시와 기교의 근원을 찾으려는 체험을 즐길 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가치 즉, 미학적 속성까지 감상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연상의 유희 또는 일단의 기호의 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 작품의 유기적 부분, 작품이 스스로의 통일성 안으로 유희시킨 다음 스스로 발산하는 창조적 활력의 근원인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관람자는 형식의 진정한 특질, 다름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작품의 가치를 음미하고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²⁾

그리하여 본인은 일련의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보여진 창조와 미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 이미 인간의 날고자 하는 욕망과 동양의 비천 복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있었으며 이어서 인간의 욕망으로 본 물의 이미지와 복식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물질개념을 물질과 정신을 두 개의 독자적 실체로 보는 것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일체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들도 물질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는 포괄적 범위로 인식하여³⁾ 서구적 현대문명의 관념적 핵심은 상극적(相剋的) 질서, 파괴(破壞)의 세계관을 의미한데 반해 동양사상은 상생적 질서가 추가 되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관계를 양(陽), 즉 플러스(plus)의 결과를 낳는 정합(positive sum) 개념으로 파악하여 자연과 인간 및 문명이 조화로운 정합과 질서가 대동한 것으로 보았다.⁴⁾ 이는 서구의 논리의 틀이 되어 왔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구담론에 의해 가리워졌던 동양의 것을 되찾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문화평가의 대전환으로서 동·서상의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상군선도를 중심으로 물의 의미와 현대에 있어 특히 현대 패션의 이벤트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과거와 현대, 동양과 서양과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여 문화적, 문명적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으로써 동서양의 담론으로서의 물의 일반적 의미를 찾아 해상군선도에서 보여지는 물위를 걷는 군선들의 부유의 의미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나타난 복식 및 섬유투의 관련성으로서의 물의 의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물의 이미지로서 복식에 표현하고자하는 작가들의 미적 세계를 유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구방법으로 해상군선도의 신선의 유래와 군선의 복식으로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소장

1) 최혜옥, 20세기에 있어서의 환경과 미술창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p.10

2) 움베르토 에코, 열린예술, 조형준역, 1996, p.176

3) 이강수, “도가사상과 새로운 과학”, 한국도교 사상연구회 편,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명, p.38

4) 박웅서, “21세기 아시아의 진로와 동양문명”, 포럼 21, 1995, 겨울, 통권 14호

품인 해상군선도를 연구한 본인의 선행논문을 참고 하였으며 물에 뜨는 섬유 개발로서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현대에 있어 부유의 의미로는 패션디자이너 들의 물을 연출한 콜렉션의 중심으로 물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II. 동양과 서양의 담론으로서의 물과 부유의 의미

역사이래로 형이상학이나 하학은 세계의 본질이나 그 생성원리에 관해 논의하고 해석하였다. 소아시아 서해안의 항구도시 밀레토스에서 싹이 튼 서양철학은 모든 자연현상을 의인적인 신으로 보는데서 벗어나 자연을 객관화하고 그대로 이해하는데서 시작하였다.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Thales)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 곧 원질(arche)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로써 설명하여 모든 것이 물에서 생겨나서 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물을 물의 변형으로 보았다.⁵⁾

또한 물의 사고, '물의 심적 현상'⁶⁾의 정수를 밝히기 위해서 물의 표면적인 이미지 밑에는 더욱더 심화되고 집착력 있는 이미지의 한 계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심화에의 공감은 스스로의 명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형식의 상상력 밑에 실체의 상상력이 시작됨⁷⁾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물을 H₂O의 구성인자가 우주적인

의미에서 항상 그 공간 속에 존재하며 만물 역시 이러한 원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곧 순환의 형성원리에 따른 불변의 법칙으로 생각하였다.⁸⁾ 이러한 동양이 갖고 있는 전통적 유기체관의 의미는 모든 자연계의 물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함에 있으며 이 유기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물질성과 정신성(원리성), 개체와 전체가 생명체란 전체 속에 하나로 통합되는 통일성에 있다.⁹⁾

모든 사물은 그 고유의 의미와 함께 상징성을 갖는데 노자는 물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겨 항상 낮고 더러운 곳을 향하여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성질을 도(道)와 같이 보았다.¹⁰⁾ 작가 오상순은 그의 시 '방랑의 마음'을 통해서 바다와의 내면적 일치를 추구하여 불교적이면서 도교적인 주객일체로 예술론적, 심미적 신비체험의 자리로 바다를 그려냄으로써 시를 통해 바다는 거대한 모태, 요람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기도 하였다.¹¹⁾

또한 바슐라르(Bachelard, G.)는 물을 부드러운 과 난폭함으로 양분하여 부드러운 물은 인간이 물에 대해 가지는 거울, 죽음, 이별, 여성적, 유동적 이미지, 물이 흙, 불, 공기 등과 결합되는 복합적 이미지와 물에 대한 인간의 무의식적 갈망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원초적이고 절대적 우월성을 가져 인간의 상상력이나 무의식에서 지배적 요소로 뿌리 깊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난폭한 물

5) 김의숙, 한국민속제외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p.306

6) Psychisme hydrant(물의 심적 현상), 바슐라르가 만든 용어일 것이다. 특히 hydrant는 사전에도 없는 형용사로서 접두어 hydr가 '물의' 뜻을 갖는 hydro와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뿜'의 뜻을 갖는 hydre에 관련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아마 hydro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e psychisme은 정신, 사고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심적현상, 심리현상, 심령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6, p.13 역자주 참고)

7)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6, p.13

8) 사람과 예술, 월간 역학, 1997.2, p.126

9) 김동수, "동양의 근대화 과정과 동양문명의 특징", 포럼 21, 통권 제 13호, 1995, p.142

10) 심백강, 이야기로 배우는 동양사상, 도가-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석필, 1995, p.292

11)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집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4, p.299

은 인간의 의지력에 대한 적(敵) 또는 대립자이며 방해물이자 도전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¹²⁾ 또한 바다를 무한대의 동경과 끝없는 미지의 심연을 상징한다고 보아 수평으로 물마루는 현실의 한계이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의 시작을 상징하고 수직으로 해저는 미지의 신비를 상징한다¹³⁾고 보기도 하였다.

나르키소스 전설에 관해 허먼멜빌은 “나르키소스 이야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숨어있다. 우리들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이미지를 모든 강과 바다에서 본다. 그것은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삶의 환상, 바로 그러한 이미지다. 인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¹⁴⁾고 하여 물의 의미가 정신적 부분을 함축한다고 여겼다. 물의 신비를 연구한 테오도어 슈웬크의 이론에 따르면 물의 흐름은 그 나름의 정교한 형태를 지녀 덧없어 보이는 소용돌이 물결은 교대로 이어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회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8자 모양의 무늬를 만드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변형 과정을 추를 따라 연속적으로 동글게 이어진 척추골과 같은 유기체의 형태와 아주 흡사하게 봄으로써¹⁵⁾ 물을 의식(儀式)을 포함하는 정신적 부분을 함축할 뿐 아니라 심미적 척도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물은 예술적 분야에서는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뿐 아니라 음악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심미적 형태로 존재할 뿐 아니라 패션의 테마로서 이용되거나 패션쇼에서도 물이 사용되어져 디자이너 자신의 미적 욕구와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표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동양문화권에 있어 氣는 현상계(現象界)에 있는

모든 존재 또는 기능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모든 것이 기로 귀결된다는 기 일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는 가상이 현실화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간의 태초로부터 시작된 신체가 부유하거나 물위를 걷고 싶어하는 욕망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심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물위를 걷는 파충류인 바실리스크의 운동행태분석을 통해 인간의 수면이동이 가능한 조건¹⁶⁾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사진 1) 이는 물을 중심으로 하여 시공간적 구조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림 1〉 물위를 걷고 있는 바실리스크 도마뱀
(하버드대 연구팀) 한국일보, 1997.9.20

기에 관하여서는 체계화된 이론이 없으나 기의 실체에 접근하고자하는 기공(氣功)으로서 기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에 관하여서는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와는 대별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로서의 정기는 인체에 유동, 순환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뿐아니라 자연계의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까지 접하게 된다고 보아 인간의 생명력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다. 갈홍은 대체로 사람은 기 속에 있고 기는 사람 속에 있다고 함으로써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抱朴子 前편에 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

12)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집위원회,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4, p.288

13)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집위원회, op.cit., p.299

14) Alev Lytle Croutier, 물의 역사, 윤희기 역, 예문, 1997, 표지

15) Ibid, p.280

16) 사람도 물위를 걸을 수 있다? (하버드대연구팀), 한국일보 1997. 9. 20

리로써 천지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기'에 의해 생기지 않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⁷⁾

신체 중에 있는 '기'는 중국민족의 문화가 태동되었을 때부터 존재해 왔던 개념으로 그 함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천되었으며 후대에 이르러 기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 물질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¹⁸⁾ 그리하여 인간의 신체 중에 있는 '기'라는 것은 도교에서는 불로장생의 신선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흔히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하여 고대 인도에서는 地, 水, 火, 風을 자연의 4대 구성요소이자 동시에 인체의 기본요소로 보아¹⁹⁾ 특별한 제형이나 수행을 통해 기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있는 생물 뿐 아니라 무생물의 기도 몸으로 느껴서 알기도 한다²⁰⁾고 하였다.

서양에서는 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나 최근에는 기를 미묘한 힘(subtle energy)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세상을 이루는 물질을 분석해 보면 원자안에 소립자 세계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 아닌 물질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파장을 갖고 찬동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기로 인식하였다.²¹⁾ 이러한 기의 세계는 복잡적 힘의 장(field) 처럼 전방위적이고 비역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익숙한 근대과학의 모델이 아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유기적 조직의 상호영향이라는 신비에 취한 도가에서 신화와 과학이 아주 근접해 있어 부단한 상호교섭, 상호영향의 무대로서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²²⁾

현대에 와서는 기에 바탕을 둔 다양한 기 응용이 과학적으로 조명되고 있어 시청자의 기를 유발하여

쾌적감을 증진하는 텔레비전을 개발하는 등 기를 이용한 응용과학이 꽤 진척되고 있다.²³⁾ 또한 기발생장치를 직접 개발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기의 제도화(制度畫)라 하여 예술적인 의지를 담아서 그린 그림으로 기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도 유행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기라는 것은 기능을 포함하는 사물과 비사물의 시공적(時空的) 초월을 의미하며 이로써 물위에서의 부유는 기로써 가능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Ⅲ. 물과 부유의 의미로서의 복식

본장에서는 동양의 관점으로 본 물의 의미로서는 해상군선도에 나타난 물과 복식을, 서양의 관점에서 물의 의미는 현대에 이르러서의 물에 뜨는 섬유를 중심으로 물과 부유의 의미로서의 복식을 연구하여 보았다.

1. 해상군선도에 나타난 물과 복식

현실(現實)의 자연환경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制度)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 할 때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 초현실적인 능력, 절대자유의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현실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기대는 많은 신(神)과 사상(思想)과 신화(神話)를 만들어 내었다.

동양에서는 도(道)를 연마하여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신선을 신봉(信奉)하였는데, 신선은 하늘을 날고, 구름을 타고 다니며, 물위를 걸기도 하고, 물

17) 김구환, 「포박자」 신선사상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42

18) Ibid., p.41

19) 이의원, "체질의학과 생체자기장", 지금 여기, 1997, 3·4, p.82

20) 류인학, 산천의 일부가 되는 우리의 삶, 선, 1996, 6·7, p.31

21) 기란 무엇인가, Ibid.,

22) 한형조, "동양문명의 범주구분과 한국에서 가장 동양적인 것, 포럼 21, 통권 14호, p.137

23) 이규태코너, 기와 과학, 조선일보, 1997. 11.18

속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도 있으며,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고 하였다. 이 신선의 '선(仙)'은 '선(僊)'으로도 적는데 '설문(說文)'에서는 '장생선거(長生僊去)'라 하였고 《석명(釋名)》에 신선은 불로장생하려고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도교신앙의 근본취지는 장생불사하여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장생불사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선사상이란 인간 스스로가 개발한 신선방술(神仙方術)에 의해 불사(不死)의 생명을 향유하는 동시에, 신(神)과 같은 전능의 권능을 보유하여 절대적 자유의 경지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그것은 이미 언급 했듯이 장생불사(長生不死)와 비상비하(飛上飛下)를 자유로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변화자재(變化自在)하고 수화한서(水火寒暑) 등의 자연적 조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초월적 자유적인 존재로 인식²⁴⁾되었던 것이다.

도가(道家)가 당초에는 선도가 아니고 구류(九流)에 나열된 것인데 후세에는 마침내 신선을 도교라 하여 점차 방기(方技)의 유(流)로 들어갔으며, 물위를 걷는 불익법(不溺法), 추위를 느끼지않는 불한법(不寒法), 어둠속을 투시할 수 있는 명목법(明目法), 연금술(鍊金術), 역귀호법(易鬼呼法)등²⁵⁾ 이처럼 신선들은 여러 가지 도교의 방술을 익혀神通한 변화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물위를 걷는 것은 《포박자》²⁶⁾에 보면 선술로서 물위에서 보행하는 일, 바닷물이 들로 갈라져 그 밑바닥

을 사람들이 유유히 걸어 다니는 것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열선전전(列仙全傳)》에는 여러 가지 방술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나있는 갈홍(葛洪)²⁷⁾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도교적인 문화현상과 유사한 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하늘에 제사한다든지 신선설을 신봉한다든지 하는 우리의 고유신앙과 그것에 얽힌 풍속·습관 등이 있었고²⁸⁾ 또한 지리적 정치적 관련으로 7세기 초엽 고구려에 중국으로부터 도교의 원류 가운데 하나인 오두미도가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도교는 특히 조선시대의 회화에서 후기를 통하여 장수기복(長壽祈福)을 기원하는 신선사상이 유행되면서 신선도(神仙圖)가 많이 제작²⁹⁾되었다. 신선도(神仙圖)의 도상적인 내용에서 보면 군선행렬이 독립된 화제(畫題)로 그려질 경우 가장 보편적인 묘사방법은 '물결 위의 군선' 즉 파상군선(波狀群仙) 또는 해상군선(海上群仙)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물결 위의 군선, 물위를 걷는 신선들의 모습은 바로 도(道)의 본원적 상태인 자연(自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⁰⁾ 그것은 물결의 흐름에 순응하고자 하는 자연과 합일한 인간의 모습이며, 이성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 해상군선도(사진 2)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군선들은 각각의 개성있는 특징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특징을 팔선표해도의 팔선³¹⁾과 해상군선도의 대표적 인물들³²⁾의

24) 도광호, 신선사상과 도교, 범우사, 1994, p.13-14

25) 쿠보 노리타나, 정순일 역, 도교와 신선의 세계, 법인 문화사, 1993

26) 갈홍저, 장기근 역, 포박자, p.222

27) 《列仙全傳》, 卷四, 葛洪, 쿠보 노리타나, 전개서, p.108-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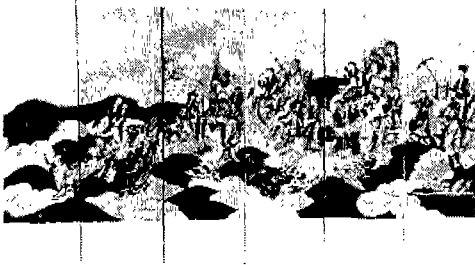
28)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p.11

29) 이러한 신선도중 단원 김홍도가 그린 6곡(曲)병풍인 해상군선도(크기:122.5×47.6cm)가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30) 김학주, 노자와 도가사상, 명문당, 1998

31) 종이권(鐘離權), 여동빈(呂洞賓), 장과노(張果老), 남채화(藍采和), 조국구(曹國舅), 이철괴(李鐵拐), 한상자(韓湘子), 하선교(何仙姑)

복식을 참고로 하였다. 군선들의 복식중에서도 특히 물에 뜨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 단원 김홍도 해상군선도 병풍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신선들의 두식은 포건과 쌍계를 하고 그외에 도인들이 사용하는 복건이나 부용관을 사용하였다. 내의는 모든 신선들이 입고 있으며, 하의로는 고(袴)나 군(裙)을 착용하였으며, 의외로 각 장면의 중심적 인물이나 연로한 노인은 학창³²⁾, 도포, 대수포 등을 착용하고 있다. 대수포 위에는 대부분 단군(短裙)의 우의(羽衣)를 덧 입었다. 수노인에게 거복을 바치는 장년의 신선은 대수포와 허리에 우의 뿐 아니라 행전도 깃털로 장식하여 가벼움을 더욱 배가 시키고 있다. 우의는 신선 또는 진인(眞人), 선인(仙人) 등을 의미하는 도인들의 상징적인 의복이다³¹⁾.

남녀의 의복의 뚜렷한 구별은 발견할 수 없지만 여신선인 마고선녀의 경우 천의(天衣)를 두르고 있어 다른 신선들과 구별되었다. 천의는 비천상에서도 보이듯이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상군선도에서 볼 수 있듯이 물에도 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선들이 착용한 학창, 우의, 천의 등은 모두 가벼움을 나타내는 의복으로 볼 수 있다.

몸에서 빠져나와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철괴, 운모분을 먹고 몸이 가벼워져 선선이 되었다고도 하는 하선고, 땀발로 서운(瑞雲)을 밟고 있는 모습의 책계를 지고 있는 노인, 일각우를 타고 있는 노자의 모습에서도 신선들의 몸이 가벼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범인과 오랜 수련을 통해 득도한 신선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선인의 거처는 선경(仙境)이다. 여기서의 선경은 곧 해상(海上)이다. 이 해상에 선인들이 공거(共居)하고 있는 그림이 해상군선도이다. 본 도상에 나타난 복식을 통해서도 우리 복식 생활의 일단을 볼 수 있는 바 복식에 나타난 신선사상과 도교사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같은 현상은 군선도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인(仙人)들의 의식에 깊이 내재한 도교적 사유(思惟)의 일단이고 선선을 가장 친밀하게 마음으로 그리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면 한국인의 심상(心象)에 그려지는 선인(仙人)과 선인의 복식을 군선도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물에 뜨는 섬유로 본 물의 의미

모든 디자인은 기술과 예술이라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유기적 관념의 총체로서 주관적 미의식을 전제로 한 조형미와 함께 기능, 기술 등이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³⁵⁾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은 신기능성 소량 다품종의 정밀화학제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32) 약공, 하선고, 이백(李白), 수노인(壽老人), 수노인에게 거복을 바치는 장년의 신선, 마고선녀, 동방삭, 복건과 도포를 입은 노인(이철괴), 책계를 지고있는 노인, 하막선인, 남채화, 노자(老子)

33) 중국의 도교에서 우의(羽衣)라고 부르는 것인데 본래 이것은 학우(鶴羽)나 조류의 우모(羽毛)를 직성해서 만든 구의로써, 우리나라의 사주(四周)에 선이 있고 띠를 매는 학창의와는 차이가 있다.(임영자, 해상群仙圖 服飾考, 세종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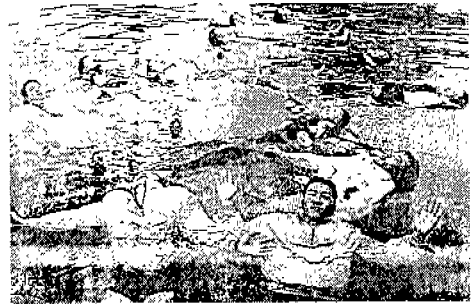
34) 임영자,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12

35) 명승수, 현대디자인학의 지평, 월간 디자인 출판사, 1989, p.31

다가올 미래에는 초전도체가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신호감지기, 전기통조림과 날아 다니는 자동차의 출현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³⁶⁾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섬유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섬유 개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예로서 일본의 한 신사복 메이커가 개발한 광천수 효과를 이용한 생체활성복은 어깨패드, 깃십지, 허리십지, 셔츠깃 십지, 소매부리 등을 미차가공한 것으로 침구, 스포츠웨어, 스타킹 등에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설문조사결과 사용자 80%가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³⁷⁾ 섬유에 있어서도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리온 섬유, 자외선 차단 블라우스, 건강스타킹, 태양열을 반사하는 운동복, 인공 기능섬유 등, 앞으로는 혁신적이며 기발한 신소재 섬유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의 하나로 물에 뜨는 섬유를 들 수 있는데 이 초경량 섬유소재 개발은 해상군선도에 나타난 선인들이 물위를 유유히 걷고 있는 장면에서 보듯 이미 물위에 옷을 입고 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방수, 방한 등 특수복 소재로 기대되는 물에 뜨는 부직포인 에어텍스(airtex)³⁸⁾는 부양력과 방한력이 뛰어난 신소재³⁹⁾와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볍고 강력한 부력을 가진 플로텍스(flotex)의 개발은 방한성, 방수성, 및 부력성을 제품에 부여하여 인간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게 되었다.⁴⁰⁾ (주)위광통상과 한국해양대는 물에 뜨는 섬유(플로텍스)를 공동개발 하였다. 사진3와 3-1은 부산 한국해양대 선착장에서



<그림 3> FLOTEX 제품 해상 부력실험 현장
(누워있는 장면) 중앙일보 1996. 10. 3.



<그림 3-1> FLOTEX 제품 해상 부력실험 현장
(서있는 장면) 중앙일보 1996. 10. 3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플로텍스로 만든 옷을 입고서 직접 바닷물로 뛰어들어 부력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어텍스나 플로텍스는 걸옷의 소재로 이용되기보다는 내의로 활용됨으로써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플로텍스의 경우 점퍼 한 벌로 체중 1백30kg짜리 인간을 물위에 뜨게 할 수 있는 옷감⁴¹⁾으로 물에 부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36) 이경희, VISION 2045 정밀화학과 생물공학의 만남: 향후 50년간 화학 발전의 원동력, 세종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37) 국제섬유신문, 1997. 10. 13

38) 천연섬유처럼 얇고 부드러워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공할 수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어떠한 공해물질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한 첨단 환경지향적인 신소재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1996년 11월 18일 재인용)

39) 물에 뜨는 부직포 첫선, 국제섬유신문, 1996년 11월 18일

40)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Flotex를 활용한 해상안전용품 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2. p.6

실제화한 것으로 응용과학으로서 실생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플로텍스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선박내의 구명제품으로 활용될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SOLAS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동의를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입과 코가 수면위에 떠 있어야만 한다고 하지만 체온유지가 되지 않으면 인명구조는 사실상 무익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총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해사안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그 실용성을 입증하면 SOLAS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²⁾ 이를 바탕으로 플로텍스를 이용한 각종 해상제품들이 출시되어 세계의 해운분야에 도입, 활용될 것이며, 그 시장성의 규모는 실로 방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방수복의 특수복의 이미지가 현대 패션에도 응용되어 부력의 느낌을 유기적 곡선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4).



<그림 4> Jean Paul Gaultier
Mode et Mode '97.10

인류문화는 하나는 축적문화로 또 다른 하나는 비축적문화로 나누어 볼 때 수학을 언어트 하여 성장, 발전되는 과학계통은 축적문화로, 일반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정신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은 비축적문화에 속하는 것⁴³⁾으로 본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물에 뜨는 섬유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예술적 사고가 물질화되면 될수록 점점 그것은 환경형성에 있어서 실용과 혼합하게 되어 '과학'과 '예술'의 두 개의 방향에 향하게 하여 기술적 기능과 미적 기능의 두 활동의 상호침투에 의하여 인간의 물질적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이론을 주창한 마스빌의 환경형성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⁴⁴⁾

IV. 현대복식을 통해 본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물의 의미

20세기 후반 들어 믹스미디어, 종합예술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대두에서 볼 수 있듯 장르의 확산개념은 표현 영역에 있어서도 한계를 넘어선 작업의 환원이 이루어졌다. 미술 뿐아니라 문화현상으로서, 복식에 있어서도 예술분야와 통합적 조형양식으로 동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일련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는 패션쇼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부정하는 다중구조적인 인식체계를 반영하는 해체주의의 현상과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 중의 하나인 탈중심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이나 문명의 대두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현대문명에 대한 반발과 갈등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류의 현대문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41) 조선일보, 1996, 10. 3.

42)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op. cit, 1996.12. p.35.

43) 정신적 안정 통해 질병치유 강조, 불교와 한국문화, 불교신문, 1997. 9. 2

44) 명승수, op. cit, 1989, pp. 87~88

상황들은⁴⁵⁾ 패션의 트렌드에도 반영되어 자연이나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천연소재를 선호하고 자연문양을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의 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은 자연의 가시적 형상을 단순히 모방했던 고대로부터 자연에서 개성적 형태를 끌어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관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방법으로 변형되어 왔다.⁴⁶⁾ 모든 패션활동과 표현의 정신적 바탕이 되고 있는 에콜로지(ecology)는 1980년대에는 부드럽고 얇은 소재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어게션,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여유로운 실루엣의 내추럴 스타일이 등장하였으며 과장, 실용적 단순성, 기하학적 구성의 탈피, 기하학적 구성을 탈피하여 새롭게 자연과 신체의 조건에 결부하여 유기적이며 소박한 공간구성을 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와 균형파괴 등이 지구의 주요과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그 주된 내용을 함으로써⁴⁷⁾ 패션테마에 리사이클(recycle), 리폼(reform) 등의 테마가 등장하였고 패션에 있어서도 지나친 조형미를 배제한 자유스러운 형태를 추구 할 뿐 아니라 의복으로서만이 아니라 패션소라든가 패션광고, 패션사진전 등에도 자연이나 생태학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복고풍의 부활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적 의상의 부활을 가져와 인위적 통제를 피하고 자연스럽게 인체미를 드러내고자하는 드레이프형이 나타났으며 물결이나 나무의 유기적 곡선, 물고기 모양, 무지개의 곡선 등을 상징하는 자

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주름선이 애용되어져⁴⁸⁾ 인위적이며 인공적인 행위에서 벗어난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이 표현된 디자인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도 배티스트(batiste)⁴⁹⁾, 쉬퐁(chiffon), 거어즈(gauze)는 비치면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며 부드러우면서도 비치는 레이온(rayon)과 마퀴셋(marquisette)⁵⁰⁾은 무거운 주름으로 처지며 움직일 때마다 공중에 뜨는 실크쉬폰 등의 이용은 자연적 요소를 테마로한 작품표현에 적절히 이용되면서 바람이나 공기, 물 등의 유동과 부유를 상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실루엣에 있어서도 지나친 조형미나 과장된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에 대한 표현은 조형적 원리의 하나인 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연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생성, 소멸하면서 자연 그 자체 나뭇대로의 질서와 규칙적인 흐름과 반복적인 울동, 변화적인 울동, 정신적인 울동, 흐름 등으로 존재한다.⁵¹⁾ 또한 유형화된 무수한 선으로 이루어진 흐름은 물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조형적 요소의 하나로서 통일적미를 형성하기도 하며 어떠한 개인적 정서나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무형의 형상으로서의 정신적 측면으로서 물의 의미의 파악은 그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 단순함을 내세운 독일 디자이너인 조안 스톡헤머(Johann Stockhammer)는 '97 여름에 유동적이며 가늘며 가벼운 볼륨과 긴길이의 드레스를 선보이기도 하였다.⁵²⁾ 강인함과 고전적이며 고급스

45) 이강수, op. cit., p.36

46) 콕미자, 꽃의 이미지를 응용한 조형 의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4

47) 김지현, 현대패션에 나타난 자연주의와 원시주의 경향에 관한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28

48)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35

49) 얇은 평직 코튼으로 실크와 같은 광택이 있음

50) 날실과 씨실에 보일 교임을 건 실을 사용하여 잔 엷은 천의 일종

51) E. B. 펠트만, 미술적 구조의 이해, 김춘일역, 열화당, 1982, pp.99~100

52) Modain 95, "Sophisticated Functionality", p.104

러운 분위기로 특유의 상상의 세계를 연출하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97 트렌드로서 자연계의 요소들, 공기와 물의 상징, 녹아서 흐르는 듯하며 점차 없어지는 듯이 보이는 섬유로 바람이 의복의 외곽선을 흡수하며 나는 듯 보이는 실루엣을 선보였는데⁵³⁾ 더불어 패션쇼장에 바다나 강, 호수 등을 의미하는 물을 활용하여 심적 측면에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6센티의 물을 박차며 걷다가 계단을 경유하여 퇴장하는 장면을 기획한 장면에는 음악이 없이 물 위를 걸을 때의 들리는 물의 튕김으로 생성되는 자연의 소리로서 청각을 자극하는 시청각적 효과를 구사하였다(사진 5). 게스(Guess)의 진(jean)광고 또한 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사진 6).



〈그림 5〉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Modain NO.102

사진 7은 부드러운 신체를 따라 흐르는 가늘고 날씬하면서 여유있는 슬림 앤 롱(slim & long) 실루엣과 함께 자연으로의 회귀현상과 정신주의를 찬양하는 경향으로서 내적인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자나 의미를 상징하는 패션을 선보임으로써



〈그림 6〉 Guess 광고(Jean)
Elle(Korea). 98.5



〈그림 7〉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Modain NO.102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패션에 사용되는 동양문자는 동양의 추상적 바탕이 되는 것으로 고암 이응노가 주장한 '형태의 아름다움이 無形의 공간에서 만들어질 때 '무형이 유형'이라는 동양의 철학적 언어가 발생한다⁵⁴⁾고 주장한 것을 밀받침하는 것으로 동양문자로서 내면의 정신세

53) Modain 95, "Fluidity", p.118

54) 이응노, "한국현대미술사에 남겨진 공백", 유희준평론집, '다시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p.93

계를 그리고 있다. 또한 스틸(steel)로 묶여 걸어가고 있는 인간의 묘사는 현대사회의 인간의 소외와 경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의 휴머니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진 8).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의 유토피아의 추구, 자연과의 융화를 의미한다.



〈그림 8〉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Modain NO.102

이렇듯 자연은 자연의 가시적 형상을 단순히 모방했던 고대로부터 자연에서 개성적 형태를 끌어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관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방법으로 변형되어 왔다. 패션사진전 <1398-1998, 물>을 기획한 닉스 전(nix展)에 출품된 '물이 물이지'라는 제목하의 작품은 공기 중에는 스모그를 풀어 놓고, 수족관에 맑은 물과 금붕어, 사람을 집어넣어 물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말해주듯 '물이 물이지'라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물의 의미를 좁게 하려하지만 사실은 물이 갖고 있는 함축성과 포용력과 광범위함으로 물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9, 9-1). 또한 물의 이미지 표현은 패

션사진에도 나타났다. 사진 10은 미소니(Missoni)의 패션사진으로 니트의 사용과 함께 물 속에 뛰어들 동작과 미소 등은 인위적 통제를 피하고 자연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다. 니트의 착용감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간편함은 인간감정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어 물의 부력으로서 인체와 의복이 부유하



〈그림 9〉 '물이 물이지'
Nix展 <1398~1998, 물>



〈그림 9-1〉 nix展



〈그림 10〉 Missoni 패션사진
VOGUE(Italy) 96.9

는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 섬유의 발달을 가져오거나 현대패션에서 물이 이슈화한 것은 유기체의 철학자 화이트 헤드(Whitehead)가 주장하는 세계의 기본적 구성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라고 한 것⁵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형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자연의 형태나 이미지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 감정적 효과를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조형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물의 심적, 실체적 의미가 무기교의 기교나 유기적 곡선, 명쾌한 볼륨, 생태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자연성에 있으며 더불어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 인간성의 복귀 등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조형예술로서의 패션 디자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결합된 미적 추구에 의해 영향을 받아 디자이너들의 주관적 미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현대에 나타난 일련의 패션 디자인들은 현대의 조형예술과의 교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형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패션디자이너도 또한 여타 조형예술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지방주의가 부각 속에서 전통적인 주제와 방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차별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흐름과 같이하고 있다.

일련의 작품에서 보듯 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로 물의 실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물의 개념에서 보듯 함축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의식(儀式)을 포함하는 정신적 부분을 함축하여 예술적 분야에서는 미술, 연극, 영화, 문학 뿐 아니라 음악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심미적 형태로 존재하는 물은 예술의 새로운 구상, 새로운 테마, 새로운 기법,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가져옴으로써 암시와 기교의 근원을 찾으려는 예술적 체험을 갖게한다.

그리하여 물의 개념을 해상군선도를 중심으로 물의 심적 현상과 함께 현대에 있어서는 현대 패션의 이벤트적 측면에서 어떠한 심적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과거와 현대, 동양과 서양과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한 문화적, 문명적 물의 미적 체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물의 의미는 현대에 와서 관련 섬유의 발달을 가져오거나 현대패션에서 물이 이슈(issue)화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해상군선도에서 보여지는 물위를 건는 군선들의 부유의 의미와 복식의 특징을 살펴봄은 물의 의미 및 미적 추구의 세계를 유추해봄으로써 서구의 논리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양을 인식하는 문화평가의 대전환으로 동·서양의 새

55) 김용정, "기술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 18권 4호, 1995, p.7

로운 세계관을 모색함을 의미하며 현대문명 속에서 동서문명의 공존을 주장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상적, 문화적 흐름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알렉산더 맥퀸의 콜렉션에서 행해졌던 패션 쇼장에 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탈구조주의에서 비롯된 해체주의 현상의 하나로서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가 주장했던 '건축공간으로서의 해체주의는 공간에서 발행하는 이벤트'와의 관계를 의미상의 해체주의 건축방식으로 보았듯이 그 또한 패션의 이벤트적 측면에서의 해체주의 패션경향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패션에서 물이라는 개념은 의미상의 개념으로서 실루엣이나 소재 등에 디자이너의 감정을 이입하여 형상화할 뿐 아니라 실체로서의 물을 직접적으로 패션에 도입함으로써 패션디자이너들의 미적 욕구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보여지듯 여러 사조 및 사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다양하면서 획기적인 현상들은 중심주의의 거부로 특징지워지는 서구문명의 보편성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 체계 대신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는 현대사회의 수평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공존함을 보여주는 20세기의 문화전반의 경향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패션을 고립적 영역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현대조류 속의 여타 영역과 관련한 조형예술로 인식하여 패션디자이너들의 세계에 대해 체계적인 미적 해석이 이루어져야하며 후행연구에는 패션 디자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결합된 미적 추구로서 인식하는 새로운 조형적 시도가 계속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 집문당, 1993
- 명승수, 현대디자인학의 지평, 월간 디자인 출판사, 1989
- 심백강, 이야기로 배우는 동양사상, 도가-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석필, 1995
- 이강수, "도가사상과 새로운 과학", 한국도교 사상연구회 편,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명
- 이응노, "한국현대미술사에 남겨진 공백", 유홍준평론집, '다시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4
- 광미자, 꽃의 이미지를 응용한 조형 의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구환, 「포박자」 신선사상의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혜옥, 20세기에 있어서의 환경과 미술장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Flo-tex를 활용한 해상안전용품 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2
-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경희, VISION 2045 정밀화학과 생물공학의 만남: 향후 50년간 화학 발전의 원동력, 세종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 가스똥 바슬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문예출판사, 1996

- 움베르토 에코, 열린예술, 조형준역, 1996
- Alev Lytle Croutier, 물의 역사, 윤희기 역, 예문, 1997
- E. B. 펠트만, 미술적 구조의 이해, 김춘일역, 열화당, 1982
- 선, 1996, 6·7
- 월간 역학, 1997.2
- 정신문화연구 제 18권 4호, 1995
- 지금 여기, 1997, 3·4
- 포럼 21, 통권 제13호, 1995
- 포럼 21, 통권 제 14호, 1995
- 불교신문, 1997. 9. 2
- 조선일보, 1997. 11.18
- 한국일보 1997. 9. 20
- 국제섬유신문, 1997, 10, 13
- 조선일보, 1996. 10. 3
- Modain 95